

국어 궁중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장태진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

1. 궁정 언어의 연구

언어학에서 궁정 언어가 논급된 것은 일찍이 예스페르센(Jespersen, O.)의 명저(1925)¹⁾를 들겠지만, 이것이 사회언어학의 주제로 취급되기란 초창기 업적인 카펠(Capell, A.)의 저서(1966)²⁾에서였다. 이 책에서는 궁정 언어의 기원론적 특징이 태평양 지역의 추장 언어에서 볼 수 있는 어떤 특징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본격적 기술은 태국의 ‘왕실 언어’가 될 것이다.

국문학에서는 이들 연구가 비록 ‘궁중 문학’ 또는 민속학의 분야를 강조하지만, 초기 김용숙(1962)³⁾의 연구에서 볼 수 있고, 이어 황경환(1963)⁴⁾의

1) 이 책은 1925년, “노르웨이 인류문화비교연구소 총서”의 한편으로 집필되었지만, 여기 미국 인디애나대학 출판부 1964년판 “MANKIND, NATION and INDIVIDUAL from A Linguistic of View”를 들어둔다.

2) 이 책은 1966년, “STUDIES IN SOCIO-LINGUISTICS, Mouton: The Hague”로 간행되었다. 아울러 Kachru, B. B.의 서평이 “Foundation of Language, Vol. 5(1969), pp.140~8.”에 수록되어 있다.

3) 김용숙(1962) ‘이조후기 궁중어 연구’, “향토서울” 제13집, 서울.

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 국어학에서는 김종훈(1969)⁵⁾의 연구가 있다. 그럼에도 사회언어학에서 궁중 언어의 연구를 어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가닥 심사숙고할 과제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 글은 신규 자료의 추가 없이, 추론 형식의 논술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국어학의 경우, 그 자료가 다분히 ‘역사적 사회언어학’의 테두리에 들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어의 ‘사회언어학적 성층’에 대한 연구가 지지 부진한 현황에 비추어 볼 때, ‘궁중 언어/반촌어/민촌어’ 등의 연구가 이 방면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들 ‘궁중 용어’의 연구 대상은 순수한 특정의 ‘신분·계급’이라는 사회적 변인에 제한되지 않고, ‘왕, 왕족, 환관, 궁녀, 궁노’ 등, 다양한 신분과 계층을 망라하는 ‘궁궐 공동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전형적으로 폐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당시의 서울말과의 끊임없는 언어 접촉을 통해 중흥으로 그 영향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궁중 언어’는 수백 년 성쇠를 거듭한 왕국의 역사와 함께 서울에 실재하던 중요한 ‘특수어 공동체’가 될 것이다. 더욱이 그 사회적 특징은 계급뿐만 아니라, 왕과 왕족을 중심으로 신분상 특수화된 집단이란 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궁중 언어’는 그 스스로 계급적 다양성을 극대화시킨 특정 시기의 ‘서울말’이기도 한 것이다.

지난 날, 국가나 종족의 절대권자는 어떤 제한된 의미에서나마 단어와 문법을 바꾸어 쓸 수 있는 힘을 가진다. 서구 여러 언어에서 볼 수 있는 궁중 언어에 대한 초기의 언급은 예스페르센(1946: 128)⁶⁾에서 나타난다. 즉 로마 황제는 한 사람이면서 몇 사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we’라 말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른 바, ‘royal we’라 하여, 서구의 현대어에도 전승된다.⁷⁾ 영어에서는 중세 영어(13C)부터 쓰이고, 네덜란드어에서는 왕의 자칭 ‘ons’ (1

4) 황경환(1963) ‘궁중용어’, “국어국문학” 26, 서울, pp.269 ~ 93.

5) 김종훈(1969) ‘궁중어고’, “국어국문학” 42·43, 서울, pp.235 ~ 48.

6) Jespersen. O.(1946) “Mankind, Nation and Individual from Linguistic Point of View”, Indiana University Press, Bloomington, U.S.A, p 198 . (須貝清一 眞鍋義雄 譯, 1941, “人類と言語”. 東京 310+12+22 pp.)

7) 西田直敏(1982) “敬語”, 東京, p 416 .

인칭 복수 주격)로 쓰이며 황제나 교황의 언어에서는 ‘짐’(朕)의 뜻(1인칭 단수 주격)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포르투갈어에서 ‘nói’(1인칭 복수 주격)를 사용하는 것은 군주나 고승이 자기 말에 권위를 붙이기 위함이라고 한다.

국어의 경우에서도 1인칭을 복수로 표현하는 미어법(euphemism)이 있어, 위신 형식(prestige form)으로 규정할 수 있는 화법이 된다. 예문을 보자.

나는 목소리가 크다 → 우리는 목소리가 크다.

나는 개고기가 좋다 → 우리는 개고기가 좋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화체의 차이를 제안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들과 관련하여 반촌어의 ‘1인칭 복수’의 표현에서 ‘자경법’의 쓰임을 볼 수 있다. 내방 가사에 ‘점잖으신 우리들이...’(권영철 등, 1981 : 263)⁸⁾라는 예문이 보인다. ‘1인칭 복수 자경법’은 계층 의식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동양의 여러 나라, 즉 한자 사용국에서 ‘왕의 자칭’으로 쓰이는 ‘짐(朕)’이란 원래 고대 중국에서 ‘일반적 1인칭’인 ‘나’의 뜻으로 쓰이는 것인데, 진시황(秦始皇, 259~210 BC) 이래 ‘천자’에 한정하여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한국어와 일본어를 비롯하여, 베트남어에서도 고대 중국의 한자어가 동일하게 쓰인다.(西田直敏, 1982 : 402) 어례를 인용하겠다.

龍顏(Long Nhan)	陛下(Beha)
聖上(Thanh Thuong)	殿下(Dien ha)
聖旨(Thanh Chi)	朕(Tram)
玉璽(Ngoc Ti)	

에스페르센(Jespersen, 1946: 157)에는 궁중 언어와 관련한 타부의 예가 있다.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아네메리나(Anemerina)’ 종족의 ‘Rasoherina’

8) “오조숙녀 모인노름 시비마침 따라와서 쥬는대로 어더먹고 지성으로 안잣스면 점잔 하신 우리들이 치기도위(置之度外?) 할것인데...”(21.화전답가) 권영철·주정향 (1981)화전가연구, 서울, p.262.

여왕이 즉위하였을 때, ‘Soherina’(누에)라는 단어는 금지되고, ‘명주의 자식’을 뜻하는 ‘zona dandy’로 대체되었다.

오늘날 세계에 존속하고 있는 왕정 국가들은 그들 나름의 정교한 ‘궁정 언어’를 가지고 있다. 한국말의 경우도 비록 과거의 일이나 전통적 ‘궁중 언어’를 가진 바 있었다. 그리하여 이것은 우리들의 소중한 언어재임을 확인하게 된다.

2. 세계의 궁정 언어

현대의 세계 216개 주권 국가⁹⁾(외교통상부, 2000: 15~9)¹⁰⁾ 중에는 약 10.6%에 해당하는 23개 왕정제 국가가 있고, 이들 중 10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 여러 왕국에는 질적 발달(qualitative development) 또는 양적 발달(quantative development)이라는 언어 발달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모두 ‘궁정 언어’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왕국 정체가 ‘절대 군주제, 세습 군주제, 입헌 군주제’의 어느 것이든, 그들 ‘궁정어 공동체’에 있어서 나타나는 ‘궁정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징이 있는데, 이들을

9) 이들 왕국 목록은 다음과 같다.

(아시아)	네팔(Nepal), 부탄(Bhutan) 사모아(Samoa) 캄보디아(Cambodia) 통가(Tonga)	말레이시아(Malaysia) 부루나이(Brunei) 일본(Japan) 태국(Thailand) 투발루(Tuvalu)
(유럽)	네덜란드(Netherland) 덴마크(Denmark) 벨기에(Belgium) 스페인(Spain)	노르웨이(Norway) 룩셈부르크(Luxembourg) 스웨덴(Sweden) 영국(U.K.)
(중동)	오만(Oman) 카타르(Qatar)	요르단(Jordan) 쿠웨이트(Kuwait)
(미주)	바하마(Bahamas)	

10) 외교통상부(2000) “세계각국편람 2000”, 서울, p610 .

몇 가지로 논급하여 보겠다.

(1) 태국의 궁정 언어

먼저 카펠(Capell, 1966: 107~8)¹¹⁾에서는 현행 궁정 언어에 관한 전형적 기술을 태국의 ‘궁정 언어’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았는데, 태국의 경우, 상당히 풍부한 어휘가 발견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 중에는 얼마의 인도 기원이 있고, 과거 통치자의 자취로서 캄보디아어가 쓰인다. 그들 왕실 어휘(royal vocabulary)내부에는 4등급이 있는데, 단어의 가장 정교한 집합이 왕과 왕비에게 사용되거나 혹은 관련된 것이며, 세 가지 덜 정교한 집합은 ‘2·3·4세(世)의 왕족’에게 사용되는 것들이다. 그 마지막의 것은 다만 약간 특수화된 용어인데, 규범적 글말(normal writtern language)과 입말(spoken language), 그리고 남성과 여성, 화자와 청자 사이에 함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태국의 ‘왕실 용어’는 살아 있는 언어재로서, 국민들은 누구나 이것을 습득하고 있다. 물론 배우기에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들은 학교 교육이나 종교 활동 또는 문학, 연극과 같은 문화 활동을 비롯하여, 텔레비전, 라디오, 대중 매체 등을 통하여 ‘왕실 용어’를 접하는 기회가 많이 있다고 한다. 왕족의 자녀들과 평민의 자녀들은 같은 학교생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언어와 예절을 배우게 되고, 학생들은 2차 학교부터 ‘왕실 용어’를 교양으로 학습하게 된다. 또한 왕족 일가에서 설립한 기숙사 학교(boarding school)에서도 예절 어휘(proper vocabulary)를 배운다. 어린이들은 왕으로 분장한 배우의 출연에서 또는 역사 공부에서 ‘왕다운 인물들’(royal personages)들에 관한 지식을 넓힌다. 그리고 유명한 라마(Rama)왕 6세의 ‘왕실 연설’(royal speech)도 실습을 통해서 학습하며, 더욱 ‘왕실 용어’는 불교, 기독교 등의 ‘종교 용어’(religion term)에 수용되어 있다. 따라서 오늘날 ‘왕실 용어’는 국민들의 ‘언어생활’ 전반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것이다.

11) Capell, A. (1966) op. cit.

(2) 일본 왕실 용어의 변화

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왕실 용어는 큰 변화를 겪었다(西田直敏, 1998: 329~34)¹²⁾. 1945년 8월 15일에 패전국이 된 일본 사회는 크게 변모하게 된다. 메이지 헌법에 바탕하는 천황 통치의 ‘대일본제국’은 소멸하고, 주권 재민, 기본적 인권 존중, 평화주의의 신헌법에 의거하여 새로운 일본국이 된다. 천황은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의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천황은 ‘현인신(現人神)’을 포기하고, 스스로 ‘인간 선언’을 하게 된다. 이후 많은 특수어를 경칭어로 대체하고 자경법(自敬法)도 폐지하게 된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변화를 택하게 된 ‘능동적 변화(active change)’의 유형이다. 아래를 보인다.

玉体·聖体 > 御体(okarada)

天顔·容顔 > 御顔(okao)

寶壽·聖壽 > 御年(otosi), 御年令(gonenrai)

叡智·聖旨·宸襟·懿旨 > 尊意(obosimesu), 御考(okangae)

勅語 > 御言葉(okotoba)

朕 > 私(watakusi)

이와 같은 왕실 경어의 변화는 그들 민주화의 단계와 정비례한다.(이하자, 2001: 60~3)¹³⁾ 즉 50년대가 젊은 층의 강력한 민주화 요구로 인해 왕실 경어가 축소되었으나, 60년대는 나이 든 계층의 반발로 일시 역현상을 보였다. 그럼에도 70년대 이래 왕실 용어 사용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지만, 반면 일반 경어는 계속 확대된다는 지적이 있다.

12) 西田直敏(1998) “日本人の敬語生活史”, 東京, p.392 .

13) 이하자(2001) ‘신문기사를 통해 본 일본인의 경어意識 변화연구’, 서울.

(3) 고려말 궁중 언어의 변화

한국의 궁중 언어는 물론 현행 궁정 언어가 아니다. 고려시대 말 원나라 지배 하에 있을 때, 그들 간섭으로 궁중 언어를 바꾸게 된다. 고려사(권 28: 14)에 의하면 원의 진수관(daruvaci, 達魯花赤)이 횡난하여 말하기를¹⁴⁾ ‘선지(宣旨)라 칭하고 짐(朕)이라 칭하고 사(赦)라 칭하니 무슨 참월할 일이냐’ 하거늘, 왕이 참의 중찬 김방경, 좌승지 박항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하기를, ‘감히 참월함이 아니라 다만 조종이 상전하는 구례를 따를 뿐이었던 바, 감히 고치지 아니 하리오’ 하고 이에 선지를 왕지(王旨)로, 짐을 고(孤)로, 사(赦)를 유(宥)로, 주(奏)를 정(呈)으로 고쳤다는 기록이 있다. 즉 이것은 외부의 간섭으로 변화를 택하게 된 ‘피동적 변화’(passive change)의 유형이 된다.

3. 국어의 궁중 언어

나는 우리들의 과거 궁중 문화가 이 나라 전통 문화에서 내세울 정수의 하나라고 본다. 즉 궁중 의상, 궁중 요리, 궁중 건축이 각기 한국의 전통적인 ‘의상, 요리, 건축 등’의 문화에 있어서 정상을 점유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궁중 언어는 한국어의 전통에 있어서 가히 백미가 된다. 특히 호칭과 경어법의 발달 등은 대단히 정교한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예스페르센(Jespersen, 1964: 61)에서 지난날 최량의 영어를¹⁵⁾ 궁정 통상어(the usual speech of the court)로 본다든가, 프랑스에서 17세기 절대 왕정의 확립기(三浦信孝, 2000: 117)¹⁶⁾에 궁정의 프랑스어를 말하는 것이 세련

14) “達魯花赤 詰之曰 稱宣旨 稱朕 稱赦 何僭也 王 使僉議中贊 金方慶 左承宣 朴恒 解之曰 非敢僭也 但循祖宗 相傳之舊耳 敢不改焉 於是 改宣旨曰王旨 朕曰孤 赦曰宥 奏曰呈” 고려사 권 28, 14(충렬왕 1년 3월 갑신)

15) Jespersen, O.(1964), op. cit.

16) 三浦信孝(2000) ‘共和國の言語同化政策とフランコフォニー’, 三浦信孝 糟谷啓介編, “言語帝國主義とは何か”, 東京, pp.110 ~ 131.

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일치하고 있다.

우리들은 ‘궁중 언어’가 재래처럼 특정의 영역에 한정되어 쓰이는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궁중 용어’라는 술어에 따르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들 하위 집단어가 서울 방언과 연계되면서, 특수하게 형성 발달한 ‘역사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궁중 언어로 관용하게 된다.

이들 ‘궁중 언어’는 ‘왕을 비롯한 왕족과 그 권속인 환관, 궁녀, 궁노 등, 신분적 또는 계급적으로 특수하게 구성된 공동체의 언어이다’고 정의하게 된다. 여기 특수한 공동체라 함은 궁장(宮牆)으로 격리된 각 궁궐군(宮闕群)으로, 역대 왕조를 통하여 왕조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형성 발달된 특수한 집단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국어의 경우도 신라, 고려, 이조 등의 각 시대에 있어서, 경주, 개성, 한성 등의 각 왕도 중심권에 존속하지만, 각 지역 방언과는 크게 괴리된 일종의 사회 방언(sociolect)으로 특수화된다. 따라서 많은 특수어와 경어법의 특수화계가 발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역대 국어를 통한 ‘서울말’ 또는 계급 방언에, 그 영향을 주고받았을 것이다.

여기 궁중 제도의 형성과 그 소장 상태는 곧 왕국의 국가 체제 자체에 평행하겠지만, 특히 김용숙(1987: 7~87)¹⁷⁾에서 한국 궁녀 풍속에 초점을 둔 역사적 연구가 돋보인다. 물론 신라조에 궁제의 연원이 있고 고려조에 체제가 정비된다는 것인데, 조선조 ‘궁중 언어’의 발달된 모습은 더욱 궁중 문학의 도움과 함께 어느 정도 전모가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궁중 언어의 ‘내적 발달’에 관한 제안은 서울 하대 층 말의 ‘돈→둔, 고구마→구구마, 하오시다→허우시다’ 등의 음운론적 특징이 근래의 궁중 언어에서 ‘상향 정정’(hypercorrection)으로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궁녀 집단에서 하급자(새각시, 나인 등)가 상궁에게 왕 왕족에게 전용하는 ‘마마’를 바쳐 호칭하는 예는 ‘하향 정정’(hypocorrection)에 해당하는 것이다.

17) 김용숙(1987) “조선조 궁중풍속 연구”, 서울, p.465.

이들에 대한 궁중 언어의 ‘외적 변화’가 있는데, 전술과 같은 ‘외부적 간섭에 의한 언어 변화’가 있다. 즉 고려말 충렬왕 2년에 원의 達魯花赤의 힐난을 받아, ‘陛下→殿下, 宣旨→王旨, 朕→孤, 赦→宥, 奏→呈’으로 모두 격하하여 쓴 예를 말한다. 이것은 조선조에 와서 왕이 스스로 ‘寡人, 余’로 자칭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한편으로 궁중 언어는 외부적 침략에 따라서 ‘언어 소멸’을 맞는다. 즉 일제 침략으로 수백 년에 걸쳐 계승 발달한 궁중 언어가 소멸의 명운에 놓이는데, 대한제국의 종말이 곧 국어 궁중 언어의 소멸을 가져오게 된 예라 할 것이다.

(1) 어휘의 계통

궁중 언어의 계통은 고유어계와 차용어계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궁중 언어의 역사적인 형성 발달이 고유한 역대 왕조의 전승을 거치면서 나타나는 ‘전통 문화’의 측면과, 대외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보였던 ‘외래 문화’의 측면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1) 고유어계의 특징

이들 고유어계의 발달은 고유어를 비롯하여 일상어에 관한 이두어 또는 혼용어, 취음 등으로 나누어 보게 된다. 우선 어례를 든다.

(고유어)	마리(머리)	밭집(민가)
	대루리(다리미)	두곳없다(기쁘다)
	아니꼽다(마음에 끌리지 않다)	
(이두어)	直(지기, 下隸)	色(빛, 係員)
(혼용어)	常 없다(버릇 없다)	未安하다(서운하다)
(취음)	기별(소식)	茄子(가지)

여기 어휘의 개별적 기술을 보자. 먼저 (1) 고유어에서 ‘마리’는 보수적인 고어 표현이며, ‘밧집’ 역시 같은 유형으로 ‘안집’(궁중)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루리’는 기능 표현으로 ‘다리다’가 어원인데, ‘다리불 > 다리울 > 대리울이 > 대루리’와 같은 과정을 겪은 축약형이다. ‘두긋없다’는 ‘깃브다/깃기다’(기쁘다/기뻐하게 하다)는 동의어 쓰임에서 후자에 높은 화체가 주어져 궁중 언어에 ‘貞聖王后께서 기꺼하오심과’(한중록)와 같은 쓰임이 있는 반면, 전자는 타부에 걸려서 특수어화 된 표현이다. ‘아니꼽다’는 완곡하게 감정 표현이 억제된 미어법 형성이다. 다음 (2) 이두어에서 ‘直’은 ‘고지기(庫直), 산지기(山直), 청지기(廳直)’ 등(김종훈, 1969: 246)과 같이, ‘지키다’의 어원이다. 그리고 ‘색’은 몽고문어 ‘bicigeci / biciyeci’(문관, 서리)가 어원(김동소, 1998: 167)인데 ‘마빛(馬色) 빛아치(色吏) 일군빛(一軍色)’과 같은 복합 관직어로 사용된다. 한편으로 (3) 혼용어에서는 ‘常 없다’는 ‘떳떳하지 않다’는 완곡한 표현이며, ‘未安하다’는 내 탓으로 돌리는 겸양된 표현이다. 끝으로 (4) 취음에서 ‘寄別’은 승정원에서 처리한 일을 아침마다 적어서 반포하는 것을 ‘조보’(朝報)라 하였는데, 이것을 ‘기별’이라 하여 ‘소식’의 뜻으로 전용되었다. 그리고 ‘茄子’는 가지 모양의 ‘패물’인데, 한자 취음과 전의에 관한 것이다.

2) 차용어계의 특징

이들 차용어계의 발달은 몽고어 차용과 중국어 차용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먼저 (1) 몽골어 차용의 경우는 몽고 침입(1231~59) 이후, 원의 부마국으로 전락한 고려 말기(충렬왕~공민왕, 1275~1374) 이래 넓게 침투된 몽고풍의 영향이다. 그리하여 몽고 왕실의 공주를 정비로 맞는 고려 왕실에는 일단의 몽고 여인들이 상주하며, 몽골어가 궁중 언어에 침투하게 된다. 이들 어례와 기술을 아래에 보이겠다.

설리(薛里, 御膳을 맡아보는 內侍)

치 (赤, 직무를 뜻하는 人稱)

여기 ‘설리’는 ‘sie-li’(왕실의 호위병)가 어원이지만, ‘서리>설리>薛里(설리)’와 같은 취음 표기가 된다. 그리고 ‘치’는 ‘ci’(직무)가 그 어원으로, 비지치(必闡赤, biciyeci, 서기)와 같은 쓰임(김동소, 1998: 166~7 栗田英二, 2003: 258)¹⁸⁾으로 궁내인의 칭호라 한다. 특히 이들은 오늘날 ‘이 치, 저 치, 장사치, …’와 같이, 국어 인칭(김중훈, 1969: 235~48)¹⁹⁾에 관용된다. 다음 (2)중국어 차용어의 경우는 중국에 대한 사대 질서(최창규, 1972: 448~9)²⁰⁾에 관련되지만, 역대 왕조를 통한 중국 문화의 영향은 궁중 언어도 예외일 수 없다. 다음 어례를 보겠다.

수건(手巾, 수건) 다홍(大紅, 진홍)
 통(銅, 동)

여기 중국어 차용에 대한 제안은 남풍현(1968: 211~23)²¹⁾을 참조하지만, 이들 ‘수건’은 근세 중국어의 직접 차용이며, 다홍은 다(중국어 현실음), 홍(한자음)과 같은 혼성 차용이다. 그리고 ‘통’ 역시 직접 차용이다. 여기 수건의 현대 중국어는 ‘shou-jin’이며, ‘巾’의 본음은 ‘근’으로 알려진다.

(2) 어휘의 발달

이들 궁중 언어의 어휘 발달을 고찰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 왕권에 관한 위엄의 상징을 비롯하여 어의 정밀화에 관한 높은 표현 기능을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들 어휘 형성의 규칙과 여기 강하게 작용하는 타부의 영향을 기술하겠다. 더욱 사회언어학적 특징으로, 어휘의 ‘계층적 파급’

18) 김동소(1998) “한국어변천사”, 대구, p.273 (栗田英二 譯, 2003, “韓國語 變遷史”, 東京, p.258)

19) 김중훈(1969) op. cit.

20) 최창규(1972) ‘한국의 정치 법제’, “한국학”, 서울대, 서울, pp.444 ~ 475.

21) 남풍현(1968) ‘중국어 차용에 있어 직접차용과 간접차용의 문제에 대하여’, “이승녕 박사 송수기념 논총”, 서울, 636pp.

의 모습을 제안하게 된다.

1) 어휘의 상징과 정밀화

먼저 왕에 관한 절대 왕권의 존엄을 나타내는 상징어 용계 어휘가 발달하고 있다. 어례를 보인다.

용안(龍顏, 왕의 얼굴)	용루(龍淚, 왕·왕비의 눈물)
용상(龍床, 왕의 밤상)	용포(龍袍, 왕의 사무복)

여기 ‘용’은 한국 민속의 신화나 설화에서 수신으로 상징되며, 국조의 어버이 혹은 호국신이나 제왕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한국문화 상징사전 편찬위, 1992: 485~90)²²⁾로 그려진다. 그래서 궁중어로서의 ‘용’은 임금의 권위를 나타낸다. 아울러 여기 준하여 왕에 관련된 상징어에 ‘성-’(聖恩), ‘천-’(天恩), ‘보-’(寶齡), ‘옥-’(玉體) 등의 한자 쓰임이 있다.

다음 어휘의 정밀화에 대하여 ‘황육’(黃肉), ‘인삼’(人蔘)을 들고, 그 어례를 보인다.

황육	인삼
속살 (입의 고기)	강삼 (江蔘, 강원도 삼)
초마살 (대접살 고기)	금삼 (錦蔘, 금산 삼)
구녕살 (불기 부분의 고기)	송삼 (松蔘, 개성 삼)
내심 (질이 좋은 고기)	노당삼 (路堂蔘, 중국 삼)
가리 (갈비)	
도기기 (불기살)	

이들 어휘는 거의 화역(register)에 관한 전문어의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생산자의 측면이 아닌, 소비자의 측면이기 때문에 전문어가 아니다. 그렇지만, 고도의 어휘 발달의 수준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22) 한국문화 상징사전 편찬위(1992) “한국문화 상징사전”, 서울.

2) 어휘의 형성과 타부

궁중어에서 단어들은 크게 보아, 왕을 비롯한 왕족들에게는 특수어(예: 汗雨, 의례)를 쓰지만, 정작 왕이나 왕족 자신들은 일반어(예: 땀, 옷)를 쓰게 된다. 따라서 왕과 왕족에 관한 ‘신체, 의류, 식사, 행지...’ 등에 관한 특수어에는 광범하게 경어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 일반어에 대한 특수어의 대치 과정을 보자.

첫째, 고유어계 내부의 대치가 있다. 여기 음운론적 과정에 의한 대치로서, 처음 아래의 모음이 i모음화의 어례가 있다. 즉 <다스마> <다시마>가 있어, 보수형을 취하고 있다. 물론 광역어는 ‘다시마’이다. 그리고 ‘o > u’에서 ‘골모 > 골무’의 개신형을 취하며, ‘i ~ u’에서 ‘귀우개’가 오늘날 충청 방언에 쓰이지만, 광역어는 ‘귀이개’이다. 이들은 서울말과의 괴리 현상이다. 아울러 중세어 ‘마리’가 쓰이고 있어 ‘마리 아뢰다’(머리 빗겨 드리다)와 같은 쓰임도 있다. 따라서 고어류의 보수형이 미어법(euphemism)의 기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뢰다’(빗겨 드리다)가 특수어의 동사로 호응한다. 여기 신체 어휘에 적용된 타부의 기능으로 보인다.

둘째, 고유어계에 대한 한자어계의 대치가 있다. 이것은 궁중 언어의 중요한 특징인 바, 여기 어례들은 경칭어의 기능을 가진다.

눈 → 안정(眼精)	입 → 구순(口脣)
귀 → 이부(耳部)	이마 → 액상(額上)
손 → 어수(御手)	얼굴 → 용안(龍顏)
발 → 족장(足掌)	다리 → 각부(脚部)

셋째, 한자어계 내부의 대치가 있다. 이것은 음운론적 과정에 의한 어형 대치를 뜻한다. 여기 ‘글말 > 입말’이 있어, ‘두부(豆腐) > 두포(현대 중국 입말은 ‘dòu fu’)’의 예이다. 그리고 ‘o > u’가 있어, ‘두모(斗毛, 물동이) > 두무, 포지(포~) > 푸지(푸디)’ 등의 예이다. 이들의 경우는 개신형이 되겠

다. 특히 ‘의례 음식’으로서 ‘떡’의 경우, 높은 스타일에 쓰이는 ‘편’(飧)은 최남선(1915)²³⁾에서 ‘대’(櫛)와 함께 궁중 언어 기원의 ‘고유 한자어’로 추정한다. 즉 ‘飧 : 餅也 떡 見俗書’와 같이 주석되고 있다. 그리하여 반촌어에서는 ‘경칭어, 제례 용어’에 쓰인다. 그러나 ‘궁중 언어’에는 다시 ‘병’(餅)이 많이 쓰인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보인다.

(궁중언어, 반촌어)

(H L	(H L	병(餅)…송병, -
		편(飧)…송편, 절편 떡…… - 흰떡

여기 각별히 주의하는 것은 ‘의례 음식’에 있어서, 반촌어가 길흉에 관계 없이 ‘편, 떡’를 함께 쓰는 데 반하여 민촌어는 ‘떡’(일반)과 ‘땃밥’(제례)을 각기 배타적으로 쓰며, 전경수(2002: 411)²⁴⁾에서는 오늘날 그 모습이 중앙 아시아 교포말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넷째, 특수어 대치가 있다. 먼저 (1) 단어가 개별적으로 표현하는 부류가 있는데, 예를 들면 ‘기소(기소)에 드시다(왕이 취침)하시다, 기소에 납시다(왕이 기침하시다)’와 같은 직접 타부를 표현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기소 > 기수’와 같은 음운 변화를 입거나, ‘침수(침소)드오시다. 침수 나오시다’등으로 대치되었다. 한편 앞서 본 ‘포지’(포지, 요)는 ‘포단>*포단지>포지’와 같이, 타부의 접미어 ‘지’의 결합이다. 그 발음이 ‘여음’을 뜻하는 말과 유사하여 ‘포지>포디’와 같이, 부정 회귀(false regression)를 취한 것이다. 다음 (2) 각 단어군 가운데 집합적으로 이들 타부를 표현하고 있는 부류를 구별할 수 있다. 즉 ‘성’의 변인에서 ‘남녀’ 각기 단일성의 경우보다 ‘남녀 접촉성’이 타부 강도에 있어서 강할 것이다. 그리고 ‘의미 영역’에서 각기 ‘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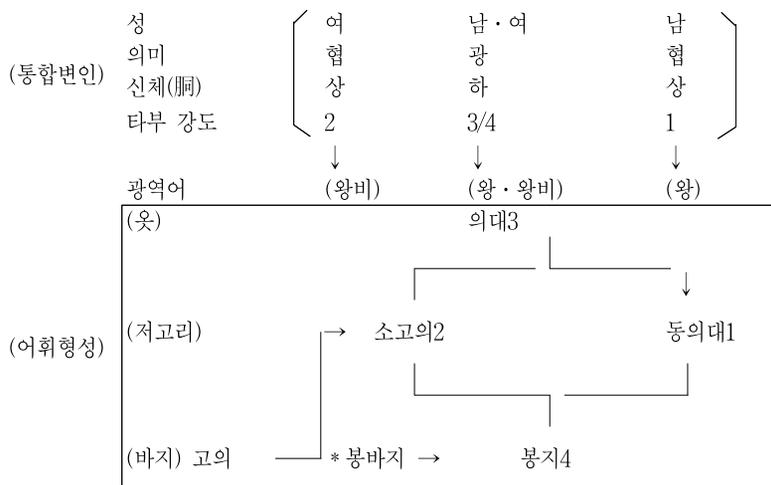
23) 최남선(1915) “신자전”, 서울.

24) 전경수 편(2002) “카자흐스탄의 고려인”, 서울대 출판부, 서울. p574.

리, 바지’를 뜻하는 ‘의미 영역’보다 ‘옷’을 뜻하는 넓은 의미 영역에 보다 높은 타부 강도가 지정된다. 또한 신체 부위에 있어서 동체의 상위보다 하위에 높은 타부 강도가 지정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모두 자명한 의미론적 기준으로 제안되는 것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타부의 강도가 강할수록 단어의 생산성이 높는데, 그 ‘의미 변화’는 ‘바지 >저고리’와 같이 대의어의 짝을 가로지르고 있다. 다음 도표와 그 기술을 보인다.

궁중 언어와 타부



먼저 (1) ‘봉지’(왕·왕비의 바지)를 보자. 즉 ‘바지’ >*봉바지> 봉지’와 같은 형성으로 추정하는데, 추정된 ‘*봉바지’의 어중음 삭제(syncope)이다. 여기 한자어 ‘봉하다’가 어원으로, 그 어형이 곧 타부를 표현하고 있다. 그럼에도 [남녀 접촉성] 동체의 [하부]를 변인으로 하는 [최강]의 타부가 지정되어 ‘봉지’의 신어 형성(néologisme)이 실현되었다. 다음 (2) 의대(衣襟)의

경우, ‘왕·왕비, 태자·태자비의 옷’을 뜻하며, 후궁들이 입는 옷은 ‘의복’이라고 칭한다(황경환, 1963: 285)²⁵⁾는 것이다. 따라서 ‘대’(櫛)가 ‘특수어’임을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무당의 옷’을 함께 ‘의대’라 할 경우, 엄격하게 ‘하향 정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대’에는 높은 타부 강도로서 [특강]이 지정되는 것이다. 한편 (3) ‘소고의’(소고의, 왕비의 저고리)는 ‘바지’를 뜻하는 한자어 ‘고의’(고의, 남자의 여름 홰바지)에 대한 신어 형성을 보인다. 따라서 ‘바지’의 뜻인 ‘작은 고의’가 ‘왕비’의 저고리를 뜻하게 된다. 그리하여 타부의 강도는 [강]으로 지정된다. 이들 타부 기원에서 역시 ‘봉지계’가 강력한 것이다. 끝으로 (4) ‘동의대’(왕의 저고리)는 의대에 의한 신어 형성인데, 동의대와 같은 한자어인 것이다. 따라서 성의 변인으로서 남성과 신체의 변인으로서 동체의 상위가 된다. 따라서 타부 강도는 [약]이 지정되는 것이다.

3) 어휘의 계층적 파급

이들 궁중 언어에서 ‘어휘의 계층적 파급’은 ‘진지, 뵤, 수라’의 어례로 고찰해 볼 수 있는데, 이 쓰임의 실태는 궁중 언어, 반촌어, 민촌어, 교포말 등으로 역동적 측면에서 기술하게 된다. 따라서 궁중어는 근세 국어의 자료를 중심으로 위로는 중세 국어 또는 알타이 어학과 관련지어 살펴볼 수 있으며, 오늘날 교포 말에까지 광범하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밖의 경칭어로서 ‘진지’가 궁중 언어 기원으로 보지만, 이들 어휘가 ‘진찬(進饌, 소규모 연회), 진연(進宴, 대규모 연회), 진작(進爵, 진연 때 왕에게 술잔을 드리는 것)’ 등과 함께, ‘진상(進上, 왕에게 드리는 것), 진어(進御, 왕이 입으시고 잠수시는 것)’ 등이 발달된다. 그리고 ‘진지하다’(계축 일기)와 같은 동사가 쓰인다. 따라서 하향 전파로써 광역어(language of wider communication → LWC)에 수용된 것은 명사형에 제한되고, 동사형은 끝내 궁중 언어에 머물게 된다. 더욱이 어원적으로는 ‘진지’가 이루어지

25) 황경환(1963), op. cit.

나, 혼성어로서 ‘지’는 타부를 뜻하는 고유어계 접미어 ‘-지’(소변)로 추정한다. 이들 ‘진지, 뵈, 슈라’의 동사 호응을 먼저 들어 두자.

- (진지 - 자시다) 진지 . . . 자신 바를(소언4-12)
- (뵈 - 자시다) 뵈 자셔든 (소언4-12)
- (뵈 - 제하다) 뵈 제하야 (동신속효20)
- (뵈 - 세시다) 조석뵈 . . . 세시난가(송강1-16)
- (슈라 - 셔시다) 슈라 셔실제 (내훈1-40)

여기 ‘자시다’(좌시다)는 명사 3단어에 함께 호응하지만, ‘뵈, 슈라’가 ‘세시다’(셔시다)에 특수하게 호응하며 궁중 용어임을 보인다. 그럼에도 김용숙(1987: 163)²⁶⁾에서는 근래의 입말 자료에 ‘슈라 듬시다’로 통용되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 ‘뵈’는 또한 ‘제하다’에 호응하며 제례 용어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그래서 어휘사는 우선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두겠다.

(궁중 용어) ‘진지 > 뵈 > 슈라’

한편 우리들이 주의하는 것은 ‘뵈’가 ‘왕의 진지’의 뜻으로 일반적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나인 집단의 궁녀 상호간에 ‘연장자의 진지’라는 뜻으로도 함께 쓰인다. 이는 ‘뵈’가 후기 궁중 언어에서 일반화됨을 뜻한다. 다음 출전과 자료의 예를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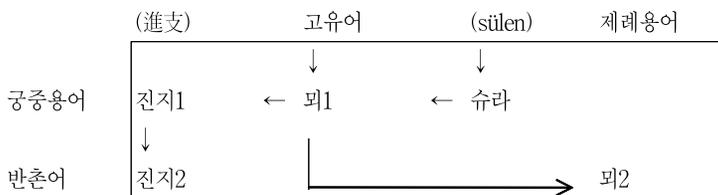
- 문왕이 두 번 뵈 자시고(文王再飯)(소언,4-14)
- 매습소(진지 잡수시오) (김용숙,1987: 68)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중심으로 하는 궁궐 공동체의 어휘 변동은 재래의 경칭어인 ‘진지’가 궁중 언어로 특수화된 ‘뵈’에 대치된다. 그리고 후기에

26) 김용숙(1987) op. cit.

는 또다시 새로 등장한 몽골어계 차용어 ‘슈라’에 의하여 위협 받더니, 결국 밀려난다. 이기문(1991: 158)²⁷⁾에서는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수라’의 대응어가 중세 몽골어 ‘sülen’(탕, 수프)어계라는 제안이 있지만, 문어 몽골어 ‘silu(n)’(수프, 육즙)는 오히려 일본어 ‘siru’(즙)에 가깝다. 더욱 ‘왕의 어선(御膳)이기에 경칭어가 되며, 이들 기능이 ‘되 > 슈라’의 교체 과정에서 ‘제례어’에 관련됨을 주의하자.

김용숙(1987: 404)²⁸⁾에서는 지난날 ‘수라’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한층 의미 내용에 접근할 수 있다. 즉 왕을 중심으로 발전한 궁중언어에 있어서, 왕만을 위한 어휘, 호칭, 경어법 등이 얼마든지 발달할 수 있는 ‘권력의 사회언어학적 상황’ 속에 ‘수라’의 쓰임이 있었다. 여기 왕의 전용으로서 ‘수라’는 정히 하루에 5회이지만, 2회인 ‘조식 수라’를 기본으로 하는데, 이것이 ‘朝夕되’(송강가사, 1-16)에 해당한다. 그리고 ‘낮것, 밤참’은 각기 ‘주담’(晝飧), ‘야담(夜飧)’(황경환, 1963: 283~288)²⁹⁾에, ‘자리 조반’은 ‘粥조반’(송강가사, 1-16)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기의 ‘슈라 > 수라’의 어의는 엄밀하게 아침 저녁의 ‘수라, 되’에 그 원의가 지켜지는 반면, 후기의 ‘수라’가 3단어를 대표하는 단어로서 왕의 식사를 뜻하게 되었다. 다음 이들의 연쇄적 변동을 보인다.



한편 반촌어에서, 제례 용어로서 특수화된 되는 ‘되 > 메’와 같은 음운 변

27) 이기문(1991) “국어어휘사 연구”, 서울. pp. 156 ~ 9.

28) 김용숙(1987) op. cit.

29) 황경환(1963) op. cit.

화와 함께 민촌어의 쓰임에서 일반화되고, 더욱 ‘멧밥’과 같은 합성어 형식으로 어형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제례 용어라는 엄격하던 전통 영역이 흐려져 가는 결과가 아닐까 한다.

이기갑(2000: 52)³⁰⁾에서는 민촌어 기원으로 보이는 카자흐스탄 교포말의 경우, 제례 용어인 ‘메, 멧밥’의 소실이 나타나고, 이 자리에 일상어의 경칭어에서 소실된 ‘진지’가 전용된다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이 단어에는 비록 경어 의식이 잔존한다 하여도, 이미 경어법에서 이탈하여 특정의 영역에 관한 ‘화역’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들을 다음과 같이 보인다.

	일상어	제례용어
반촌어	진지1	피
	↓	↓
민촌어	진지2	메(> 멧밥)
	↓	
교포말	∅ →	진지3

여기에서 ‘피’(메)는 중세 국어 ‘모시다’(훈몽자회: 2), 현대 국어의 ‘모이’(餌), 그 방언형 ‘모시’ 등과 동계어이다. 따라서 ‘모시 > 모시 > 모이 > 피 > 메’와 같은 어형 발달을 보지만, 근세 국어에 ‘몽이’(동문유해, 1748 간)의 출전으로 더욱 복잡하다. 그런데 서정범(2000: 262)³¹⁾과 박병식(2001: 43 5)³²⁾에서 이들 어원에 대해 일본어 ‘mesi’(飯)와 대응어로 제안한 것은 궁정적이다. 그러나 일본어의 경우(山口使紀, 1998: 645)³³⁾는 ‘동사’ ‘召す’의 연용형인 명사화인데, 그들 어휘사 ‘ihi > mesi > gohan’의 변천에서 ‘飯, めし’는 근세에 들어 경어 의식이 소실되었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 더욱이 알

30) 이기갑·김주원·최동주·여규동·이현중(2000) ‘중앙아시아 한인들의 한국어 연구’, “한글” 247, 서울, pp.5 ~ 72.

31) 서정범(2000) “국어어원사전”, 서울, p.589.

32) 박병식(2001) “ヤマト言葉 語源辭典”, 東京, p.950.

33) 山口使紀(1998) “暮しのことば語源辭典”, 東京, p.717.

타이어학(임경순, 1985: 252)³⁴)에서는 재구형 ‘pudu-’의 제안이 있다.

4) 타부의 해제

황경환(1963: 269~93)³⁵)에서는 궁중 언어에서 보게 되는 타부계 다의어는 ‘지’ 이외에도 ‘치’(왕의 신, 상투), ‘깃’(낫깃) 등을 제안하지만, 그렇게 광범하고 완고하던 타부의 적용도 어휘 확산에 따른 광역어화 과정에서 해제되어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여기 ‘매유’(대변)의 예를 든다. 즉 이것은 중세 국어에서 ‘훈몽자회’의 출전이 있다.

매유통 투(脰) (訓蒙 中6)

여기 ‘매유’는 다시 ‘梅雨’로 관용되고 ‘매우 틀’의 쓰임(김용숙, 1987: 161)³⁶)을 보이지만, ‘똥 싸고 매화 타령 한다’는 속담에서 ‘매화’(梅花)로 널리 알려진다. 따라서 ‘매화틀’이 일부 반촌어에 파급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알려진 바 국어의 ‘똥/오줌’(이승녕, 1955)³⁷)의 어휘는 먼저 (1) 만주어 ‘site-mbi’(방뇨)와 동계어로서 ‘똥’이 있으며, 오늘날 전남 방언의 ‘시둥’(인분, 비료)도 같은 어례이다. 그리하여 이들 지역 방언의 목록에는 별개의 단어인 바, 후자가 농업용어에 특수화되어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다음 (2) 앞서 ‘매유’는 중세 국어 ‘똥’과 동계어로 추정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마렵다’와 함께 민촌어(경상 방언)에 ‘말뚝 박다’(용변하다)로 전한다. 여기 일본어 ‘mari’(麻理, 대소변)를 들고, 그 어원을 타밀어 ‘mallu’(소변)라는 제안(藤原明, 1981, 77~8)³⁸)을 보인다. 아무튼 ‘매유’의 형성에는 고유어의 보수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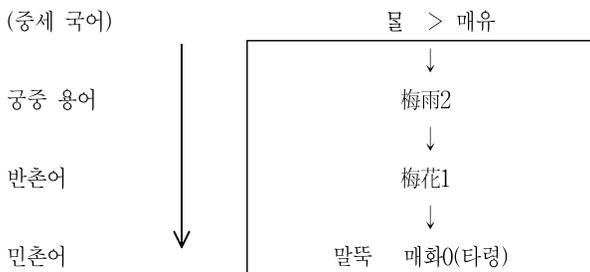
34) 임경순(1985) “언어의 비교”, 전남대, p.331.

35) 황경환(1963) op. cit.

36) 김용숙(1987) op. cit.

37) 이승녕(1955) ‘한 · 일 양어의 어휘 비교-분뇨어를 중심으로 하여-’, “학술원회보” 제1집. 이승녕, 1972, 국어학 연구, 대구, pp.55 ~ 64에 재록

이 ‘미어뱌’의 높은 스타일로써 관련되었다. 더욱 취음으로서 ‘매우, 매화’ 등이 함께 ‘미어뱌’으로 타부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어휘 확산에서 타부의 강도는 약화되고, 드디어 소멸되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도시하여 둔다.



이와 같이 ‘매우>매우>매화’는 어휘의 세속화 과정에서 타부의 약화와 해제가 따른다. 즉 특정의 화역(속담)에 수용되는 것인데, 다른 어례(마마→타부, 메→제례, 진지→경칭)도 같지마는, ‘수라’의 경우는 수용이 거부되었다. 따라서 단어 존속의 의미론적 기반이 없어, 사어의 길을 택한다. 이것이 ‘메’와 다른 점이다. 그러므로 이들 사이에 ‘의미 변화’(남기십, 1969: 136)³⁹⁾를 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5) 세속화의 모습

나인 집단의 경우, ‘무술이(水賜 관비, 처음 교변 출입이었으나, 곧 궁내 상주), 복이(불 때는 나인)’ 등, 궁내 비자들이 포함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과 함께 궁중 언어의 세속화는 피할 수 없다. 여기 방언의 침투, 속어 은어의 쓰임이 있다. 다음 간단한 어례를 든다.

38) 藤原明(1981) “日本語はどこから来たか”, 東京, p.220.

39) 남기십(1969) ‘Tabu와 언어변화’, “동산 신태식 박사 송수기념논총”, 계명대, 대구, pp.131 ~ 7.

- | | | |
|------|-------|--------|
| (방언) | 광우리 | (누른밥) |
| | 깨보숭이 | (깨소금) |
| (속어) | 문화 | (약한 불) |
| | 무화 | (강한 불) |
| | 동해 부인 | (홍합) |
| (은어) | 대식 | (동성애) |
| | 각X | (자위물) |

여기 ‘양반화’(兩班火)의 신어는 풍자적이며, ‘동해 부인’은 미어법이다. ‘대식(對食), 각X(角~)’는 성에 관련되었다.

(3) 호칭에 대하여

궁중 언어의 호칭(김용숙, 1987: 91~109)⁴⁰은 ‘존칭, 이칭’으로 대별하지만, 전자가 더욱 격식적 호칭이며, 후자는 보다 비격식적 호칭이라 하겠다. 일부 호칭어의 경우, 시대에 따른 그 쓰임의 확대와 전용이 있다. 따라서 이들 호칭 변화의 문제는 또 다른 특징이라 하겠다.

첫째 존칭에 있어서 공식 호칭에 받쳐 쓰는데, 먼저 (1) 중국어계 ‘마마’(媽媽)와 고유어계 ‘마노라, 마누라’가 있다. 그리하여 거의 병용되어 ‘대전 마마, 대전 마노라’와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초기에는 ‘마마’가 ‘왕, 왕비, 왕 대비, 세자’까지 쓰이며, ‘세자빈, 왕의 후궁, 공주, 옹주’에게는 ‘마누라’가 바쳐 쓰이기 때문에 존칭의 화계에 차등이 있다. 그리고 ‘빈, 공주, 옹주’에게 ‘자가’가 따로 전용되어, 왕과 왕족이라 하여도 이들의 쓰임에는 식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에 가면 왕의 근종과 부마(駙馬)의 가족에까지 ‘마마, 마누라’가 바쳐 쓰이는가 하면, 궁녀 집단의 ‘상궁 마마’를 비롯하여 양반 호칭에 ‘대감 마님’(남녀 공용)과 같은 쓰임이 있다. 따라서 여기 ‘마님/마누라님>마나님>마님’과 같은 발달(김용숙, 1987: 94)을 제안할

40) 김용숙(1987), op. cit.

수 있다. 그리하여 ‘계층적 하향 전용’을 보게 된다. 아울러 ‘마누라’는 서민층에서 ‘늬은 부인, 처의 비칭’의 뜻으로 관용하는가 하면, ‘양공주’와 같은 어례는 하향 전용이 바닥을 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오늘날 사어가 된 ‘마마’는 위에서 본 하향 정정을 거듭한 바 있었지만, 겨우 민간의 타부에 관하여 특정의 영역에 존속할 뿐이다. 즉 ‘천연두’를 의미하여 ‘손님, 마마’로 공존하는 것인데, 여기 ‘마마’는 높인 것이다. 다음 (2) 한자어계에 ‘전하(殿下), 저하(邸下)’가 있어, 신하가 왕 또는 동궁을 공식적으로 칭하는 호칭이다. 그리하여 이들 한자어계 호칭은 자연 중국과의 사대 실서로서 압존(壓尊)의 간섭을 받아 관용한 것이다. 이것은 고려 때 대원 관계도 같은 것이었다. 여기 호칭의 확대와 전용에 관하여, 특히 궁중의 최대 집단인 ‘궁녀 호칭’에 침범형 호칭(예, 상궁 마마)과 미어법 호칭(예, 姪娥)을 제안하여 둔다.

둘째 이칭에 있어서는 왕에 대한 쓰임의 다양성을 비롯하여, 많은 왕족의 신분에 따른 쓰임의 다양성이 식별된다. 먼저 (1) 왕에 대한 인칭은 크게 발달한다. 즉 상하 없이 객관적 존칭으로 ‘대전’(大殿)이 쓰이며, 왕모로서 다만 ‘주상’(主上)이라 하고 엄한 시부모로서 ‘대조’(大朝)라 한다. 다음 (2) 왕족에 대한 이칭은 ‘왕비(곤전, 내전) 대비(대비전, 차전, 동조) 세자(춘궁, 동궁) 세자빈(빈궁)’ 등을 들게 된다. 여기 ‘동조, 동궁’은 함께 그 거처가 왕의 법궁 동쪽에 위치한 궁전이라는 뜻이다. 끝으로 (3) 왕과 왕세자 자녀의 적서 호칭이 식별된다. 이것은 다음과 같다.

	왕	왕 / 세자
(적 : (대군 (공주 (군주		
(서 : (군 (옹주 (현주		

(4) 경어법과 화계, 화체

절대 왕권의 체제 속에, 왕을 정점으로 하는 궁중 언어에 있어서, 경어법의 모습은 보다 특징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특징은 특수 화계와 극존칭 화체를 비롯하여, 경어 대상 영역(치 뵈 오너라, 마마의 신을 가져오라: 상궁→비자)의 극대화 등을 제안하게 된다. 아울러 타부(taboo)와 미어법(euphemism)이 궁중 언어에도 영향을 주는 반면, 궁중 언어의 경어법은 측근 반촌어에 영향을 주게된다. 왕을 비롯하여 왕족 및 군신간에 정교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어법에는 이것을 정연하게 서열화하기 위한 ‘압존법’(壓尊法)의 발달(장태진, 2000: 85~114)⁴¹⁾이 상응하게 된다. 더욱 고려말 대원 관계를 비롯하여, 이조의 대명 사대에서 이들 외압(外壓)을 겪은 바 있었다. 또한 내부적인 궁녀 집단의 경어법 역성과 함께, 하위 계층의 화계 간소화와 압존법 쇠퇴를 가져오게 된다.

한편 경어법의 전용에 관하여, 특히 궁중 최대 집단인 ‘궁녀 경어법’에 ‘침범형 경어법, 하향적 경어법, 약어형 경어법’을 제안하여 둔다. 이들을 보면, 먼저 (1) ‘침범형 경어법’이 있다. 즉 ‘메’는 원래 ‘왕의 진지’를 뜻하지만, 이것이 침범형 쓰임으로 전용되어 선배 궁녀에게 ‘메쇼쇼’(진지 잡주세요)와 같이 쓴다는 것이다. 다음 (2) ‘하향적 경어법’이 있다. 즉 ‘자다, 주무시다’의 쓰임에서 ‘잡시다’(주무시다)와 같이, 비경칭어 동사를 쓰는 예이다. 이것은 오늘날 광역어에 쓰인다. 끝으로 (3) ‘경어법의 역성’(deformation of honorifics)이 있다. 즉 ‘습시다’(잡수시다)와 같은 어례인데, ‘잡습시다’(잡수시다)와 같은 어례인데, ‘잡습시다>습시다>습시다’와 같은 ‘어간 삭제’가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궁중 언어는 호칭(address)과 화체(style)를 보다 정밀하게 배열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것은 곧 압존법(honorific restraint)의 기능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위에서 보인 특수어와 호칭은 조사 ‘깨옵서, 깨

41) 장태진(2000) ‘압존법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동방학지” 109집, 연세대, 서울, p.394.

서, ~이/가'등과 더부러, 활용 어미와 공기 관계로서 화계(speech level)와 화체(speech style)을 구성하게 된다. 여기 궁중 언어의 개요(김용숙, 1987: 142~9)⁴²⁾를 보인다.

첫째 특수 화계가 있다. 이것은 화체에 있어서 '극존체'(하오소서 체)에 해당한다. 특히 왕에게는 왕대비를 제외한 '왕비, 왕족, 신하'들은 누구나 사용하며, 더욱 왕족 상호간 자기보다 높은 신분을 가지면 이 화체가 쓰인다. 여기 속하는 어미와 예문을 보인다.

~니이다(오니이다) ~소이다(오겠소이다)
 ~나이다(오옵나이다)

둘째 일반 화계가 있다. 이것은 화체에 있어서 '존칭'에 해당하는 바, 다음과 같은 하위 분류가 가능하다. 먼저 (1) 제1 화계에 해당하는 '하소서 체'가 있다. 이것은 왕비가 왕에게, 또는 세자빈이 세자에게, 또는 왕비 세자빈이 친정 수상에게 사용한다. 예문을 든다.

세자빈→세자 (이것을 쓰소서)
 세자빈→친정 부친 (언어 주소서)

다음 (2) 제2 화계에 해당하는 '허우체'가 있다. 이것은 왕과 대신 사이, 또는 왕비와 세자 사이의 비격적인 '자애, 애정'의 뜻으로 사용한다.

왕→대신 (그리 하시오)
 왕비→세자 (진정 모르시오?)

한편 (3) 제3화계에 해당하는 '허게체'가 있다. 이것은 비격식체로서 세자

42) 김용숙(1987) op. cit.

가 세자빈에게, 왕이 대신에게 사용한다.

왕→대신 (국사를 아옵는가)

세자→빈궁 (자네는 못 생각하네)

끝으로 (4) 제4 화계에 해당하는 ‘해라체’가 있다. 이것은 왕이 왕자 왕녀에게 사용하지만, 이름은 부르지 않고 ‘아기, 세자, 공주’등으로 쓴다.

왕→세자 (엇지 그리하니?)

왕→공주 (공주가 싸를 해 밋하느고?)

여기 ‘제2~4 화계’에서 ‘왕→대신, 왕·왕비→자녀’등, 공·사의 화어 상황에서 변동이 심한 것이다. 다음 ‘1·2인칭’을 첨가하여, 화계·화체의 전형적 상황을 도시하여 든다.

화계(화체)	왕 →			왕비 →			
	1인칭	2인칭		1인칭	2인칭		
특수 — (극존체)	소신	마마	왕대비	소인	마마	왕대비	
일반 {	1. (하소서)	나	곤전	왕비	소인	마마	왕
	2. (허우)	과인	경	대신	나	동궁	세자
	3. (하지)	나	(당호)	후궁	나	(당호)	후궁
	4. (해라)	나	너	왕자녀	나	너	왕자녀

4. 결어

언어와 신분 또는 계층과의 관련에 있어서, 그 사회언어학적 특징을 주장 언어 또는 궁정 언어의 모습에서 어떤 시사를 얻으려는 노력은 어느 면에

서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국어 궁중 언어의 경우, 수천 년의 왕국 전통으로 이어 온 궁중 문화의 바탕으로, 정교한 호칭과 극대화된 경어법의 화계가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역대 왕조에 영향을 끼친 중국 문화를 비롯하여, 중세기 원의 지배 하에서 받은 몽골 문화 등으로 많은 중국어계, 몽골어계의 차용어를 가지고 있다. 더욱 현대에 들어서 일본에 의한 대한제국 침략으로, 국어의 궁중 언어는 소멸의 불행을 맞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어의 궁중 언어는 고도의 발달된 모습을 지닌 소중한 우리의 언어재이다.